

사랑하면 '아름' 이 같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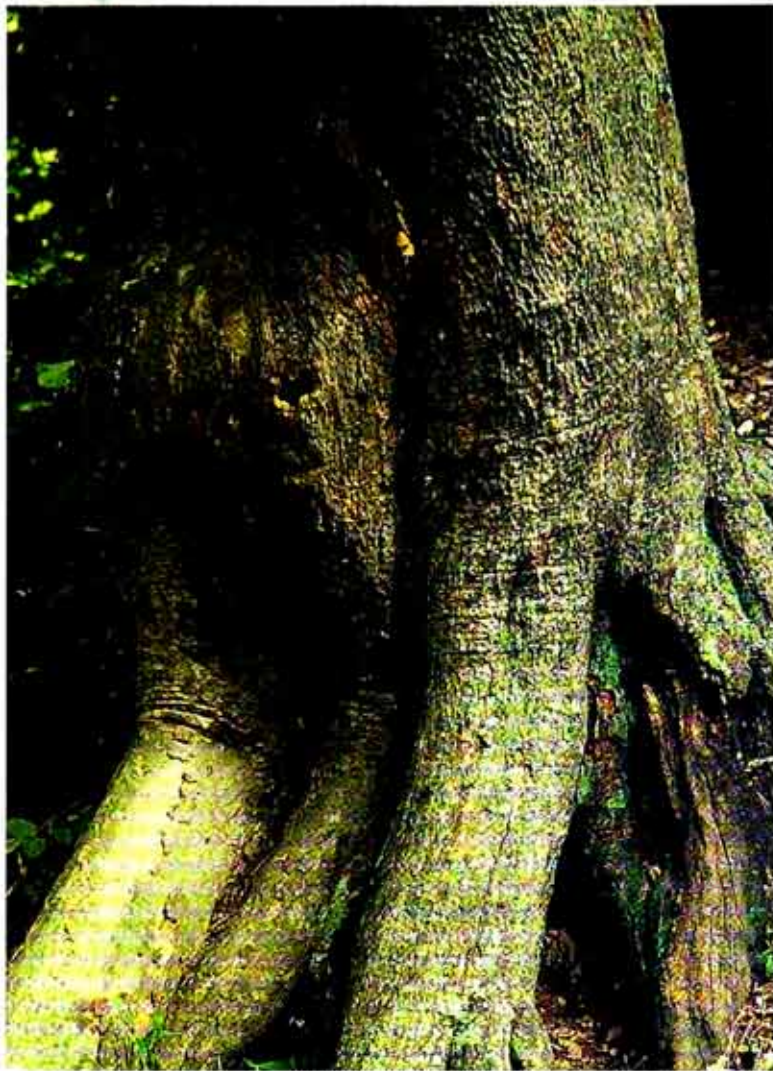
감성으로 보는 **결**

<19> 불이의 세계-사찰 에로티시즘

나는 결혼을 좀 늦게 했다. 결혼할 사람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이런 저런 사정이 생겨서 결혼이 미루어진 터였다. 우린 그동안 한 곳을 정해 놓고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친구를 만나는 데도 함께 할 경우가 많았다.

연인만 때라 다른 친구들 중에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둔 친구도 있었는데, 딱 한 녀석이 입자를 못 만나 우리를 늘 안타깝게 했다. 친구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짝을 구해 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연인이란 게 천생(天生)이라 그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애인을 소개한다고 의기양양해서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온 친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대와 호기심에 잔뜩 부풀어 약속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그 친구와 여자를 보고 우린 코를 땅에



충남공주 마곡사 길목에 선 나무

승속 둘이 아니듯
음양도 대립 아닌
원융무애의 세계

박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친구는 키가 나보다 한 10cm쯤 더 큰 적다리인데, 여자는 나보다 12cm쯤은 더 작아 보이는 아주 작달막한 여자였다. 그 친구 어깨 밑으로 처져 붙어 들어오는 등을 보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어색해하지 않았고 결혼을 했다.

어느 날 내가 친구에게 좀 짓궂게 물었다. "아, 신부의 키가 너무 작아서 불편하지 않나?" 그러나 그는 농성을 띠며 말했다. "아니, 키가 작으니까 땅에 떨어진 동전을 잘 주워서 더 예쁘더라." 오 이 아름다운 조화! 남자가 결혼해서 보온 도시락처럼 따끈따끈하게 잘 살거나, 물과 기름처럼 항상 곁들여 아옹다옹하며 사는 부부는 왜 그런 걸까? 그것은 아집(我執)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운치 있게 말했다. "달이 참 밝네요." 달다리를 돌던 남편이 운기 없게 대답했다. "보름달이니까 밝지." 남편이 하려는 아내가 갑자기 귀여워졌다. 예전에 연애하던 때를 생각하며 분위기를 잡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 내가 오늘 '탑 클라우드'에서 저녁 살게 나올래?" 아내가 놀라 대답했다. "미쳤어, 당신! 거긴 언제 누구하고 가 봤어?" 좀 잘난 아내가 짝을 많이 잃어서 고상해졌다. 돈 벌래가 다 되어 버린 남편이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밥 먹는 소리가 좀 소란스럽다. "아휴, 왜 그렇게 후루룩거리며 밥을 먹어요?" "요즘 TV 홈드라마의 대부분이 남녀, 부부의 이야기다. 내용이 좀 유치해서 그렇지 사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보면 문학이나 예술의 주제에서 남녀의 '사랑' 얘기 빼놓으면 남는 게 얼마나 될까? 그것은 남녀의 '사랑'이 곧 삶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남과 여'라고 하는 성의 이질성은 참 오묘하고 신기한 현상이다. 그것은 그냥 성의 신비라고 하는 호기심이 아니다. 남녀 성의 대립구조는 정말 절묘한 조화의 근원적 원리인 것이다. 말하자면 조화와 균형과 질서의 원리인 것이다.

남녀의 사랑이란 무엇일까? 망망대해에 많은 동그라미가 정처 없이 동동 떠다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많은 동그라미 중 딱 두개의 동그라미가 몸을 맞붙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 동그라미가 또 하나의 동그라미 속으로 들어가 딱 한 개의 동그라미로 만드는 것이 완전한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는 포물선의 한 면만 살짝 걸치거나 갈구리로 다른 동그라미를 자

기 앞으로 잡아당기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긴다. 사랑하면 '아름' 이 같아진다. 사랑하는 이의 낯빛만 보고도 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오고, 그 아픔을 대신 쳐주지 못하는 괴로움으로 잠 못 이루고 고통하는 아픔! 그런 아픔 없이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어떤 이가 말한다.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나? 아니, 무상(無相)의 안에서 다 그렇게 살지, 그것이 완전한 조화의 세계이고, 그것이 보살행이고, 불심의 세계가 아닐까?

충남공주의 마곡사를 갔다. 거의 'U' 자에 가깝게 돌아 들어가는 진입로가 인상적이다. 그 마곡사의 길목에는 멋들어진 남녀의 누드가 어우러져 있어 눈길을 잡아챘다. 꼭 하나의 기물이어야만 불이문인가? 승속이 둘이 아니듯, 음과 양은 대립하는 이항이 아니라 불이의 경지이고, 원융무애의 세계임을 깨닫는다.

나는 젊 주면 곳곳에서 이런 에로티시즘을 자주 보면서 이따하여 '사찰 에로티시즘' 이라 했다. 젊에 원 에로티시즘? 아니다. 젊이니까 더 돋보이는 것이다. 그것이 근원적인 화두가 되기 때문이다. 전생(사진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부처님 공덕 삼세를 뛰어넘네

한글대장경의 세계

현겁경

현겁경은 다른 이름으로 현겁정의경(賢劫定經)이라 하고, 발타갑상대경, 현겁상대천불발발제법삼매정경이라고도 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경은 천불(千佛)의 이름과 그 일천의 부처님이 생기 계된 경위와 그 뜻을 밝히고 있다.

전체가 8권 24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경은 대승경전으로서 불교운리 및 수도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경의 원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승경전인 점으로 미루어 범어로 기술 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원전의 성립은 기원 200년에서 250년 사이로 추정된다. 법호(法號)가 월지국(月支國)의 사문에게서 구술해 받았고 서진의 촉법호에 의하여 기원 3세기 경에 번역된 것이다.

현겁경은 대승불교의 사상서다. 대승불교의 교리를 매우 풍부하게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는 대승의 수도에 관계되는 것은 거의 망라하고 있다. 회양보살의 물음으로 시작되는 이 경은 현겁사상, 과거천불사상, 온갖 삼매의 사상, 본생담 그리고 비유담에 이르기까지 대승사상을 웅대하게 전개하고 있다. 또 많은 법수(法數)도 제도무국사상(諸國無極惠愍)속에서 거론되고 있다.

현겁이란 현재의 주겁(住劫)을 말하는 시간 단위. 과거의 주겁은 장엄겁(莊嚴劫)이라고 미래의 주겁은 성수겁(星宿劫)이라 한다. 현재의 주겁이 20으로 증감할 때 마다 천불이 출현하며 이것을 칭송하여 현겁 또는 선겁(善劫)이라 하는 것이다. 현겁은 발타갑(Bhadra)의 번역으로 현명 또는 착함을 뜻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주겁에는 각각 천불의 출세가 있다고 한다. 천불의 출세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천문상왕이 거느린 천명의 아들이 천불로 화했다는 설도 있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화현이라는 설도 있다. 천불은 각각의 부처로 따로 출생하였다는 설도 있다. 약왕경의 경우는 천불설이 또 다르다. 석가모니부처님으로부터 무수겁을 지난 과거 묘광불의 말발시에 발심하여 성도한 사람이 3천명이었는데 그 중의 천명은 보광불로부터 비사부불까지의 천불이 되어 과거 천불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천명은 구류존불에서 루지불에 이르기까지의 현겁 중에서 성도한 천불이 되고 나머지 천명은 일광불로부터 수미상불에 이르는 미래의 성수겁에서 성불할 천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 있다고 한다. 천불의 출세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천문상왕이 거느린 천명의 아들이 천불로 화했다는 설도 있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화현이라는 설도 있다. 천불은 각각의 부처로 따로 출생하였다는 설도 있다. 약왕경의 경우는 천불설이 또 다르다. 석가모니부처님으로부터 무수겁을 지난 과거 묘광불의 말발시에 발심하여 성도한 사람이 3천명이었는데 그 중의 천명은 보광불로부터 비사부불까지의 천불이 되어 과거 천불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천명은 구류존불에서 루지불에 이르기까지의 현겁 중에서 성도한 천불이 되고 나머지 천명은 일광불로부터 수미상불에 이르는 미래의 성수겁에서 성불할 천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공 초월한 부처님 형상화

본생담등 윤리·교리도 풍성

현겁의 천불의 명호가 나와 있고 7권에서는 한 부처마다 부모와 태어난 곳과 재자와 나이 등을 설하고 있으며 8권에서는 그들 부처님들이 발심한 인연을 설명하고 있다.

천불사상은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처님의 위대한 인격을 존경하고 숭배하기 위해 부처님은 오랜 과거로부터 많은 수행을 통해 현상에 출현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초월한 부처님의 존재를 형상화하기 위해 과거로부터의 수행과 그 사상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전설과 우화 등을 첨가하여 본생담으로써 이어졌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불사, 역경 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형사 받고 있다. 정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883, 역경후원금 온라인 통합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가야산 범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 정신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중량 3,300관

